

# 광주 및 전남 지역 법의부검에 대한 통계적 고찰 - 2007년 ~ 2008년 -

나주영<sup>1</sup> · 민병우<sup>1</sup> · 이영직<sup>1,2</sup>  
김형석<sup>1,2,4</sup> · 박종태<sup>1,2,3</sup>

<sup>1</sup>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및 <sup>2</sup>법과학 연구소  
<sup>3</sup>전남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sup>4</sup>전남대학교 의생명인력사업단

접 수 : 2009년 5월 2일  
게재승인 : 2009년 5월 11일

책임저자 : 박종태  
(501-746)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5번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전화 : (062) 220-4090  
FAX : (062) 223-4250  
E-mail : jtpark@jnu.ac.kr

## The Statistical Analysis on the Legal Autopsy Cases in Gwang-ju and Chonnam Area of Korea in 2007 and 2008

Joo Young Na<sup>1</sup>, Byung Woo Min<sup>1</sup>, Young Jik Lee<sup>1,2</sup>, Hyung Seok Kim<sup>1,2,4</sup>,  
Jong Tae Park<sup>1,2,3</sup>

<sup>1</sup>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and the <sup>2</sup>Research Institute of Forensic Scien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Gwang-Ju, Korea

<sup>3</sup>Chonnam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Gwang-Ju, Korea

<sup>4</sup>Center for Biomedical Human Resourc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The overall data associated with the causes and the manners of death of individuals are necessary to make policies for the public health or judicial system in the society. To obtain basic data of the causes and the manners of death, the 206 autopsy cases performed at the 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in 2007 and 2008 were statistically analyzed according to the cause of death and the manner of death.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total number of forensic-legal autopsy was 206 (139 males and 67 females). The number of the 5th decade (58 cases) and the 6th decade (54 cases) occupied over 50 percent (54.4%) of total cases.
2. Unnatural deaths were 127 cases (61.7%), and natural deaths were 79 cases (38.3%). Of 127 cases of unnatural deaths, suicides were 33 cases (26.0%), homicides were 46 cases (36.2%), accidental deaths were 37 cases (29.1%), and undetermined deaths were 11 cases (8.7%).
3. Among 79 natural deaths, deaths of cardiac origin were 46 cases (58.2%) and it was a leading cause of death in natural deaths. Deaths due to disease of vascular system were 10 cases (12.7%), deaths due to respiratory system were 8 cases (10.1%), deaths due to digestive system were 6 cases (7.6%), and other causes were 10 cases (12.4%).
4. Child deaths under the age of 10 were 8 cases (3.9%). Three cases were homicide, 3 cases were accident, and 2 cases were natural deaths.

**Key words** : statistical analysis, forensic-legal autopsy, cause of death, manner of death, Gwang-ju, Chonnam

## 서 론

국민의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국가는 그 사인을 규명하여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야 하며,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회 병리 현상을 분석하여 보건 복지 정책이나 사법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현대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법의학은 인간의 죽음을 통해 사망의 원인과 사망의 종류를 밝힘으로써 우리가 소속된 사회에서 인간의 죽음을 사법적으

로 마무리 할 수 있는 의학적 지식과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 환경 및 여건, 인력 등의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법의학은 의학의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우리나라는 현대 민주 국가로서 국민의 생명과 역을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과 같이 진정한 복지 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건 정책 수립과 사법작용을 통한 사회 안정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의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들이 꾸준히 축적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이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광주, 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서 이루어진 206예의 사법 부검을 사망의 원인과 사망의 종류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 지역에서 법의부검 예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대상 및 방법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전남대학교 법의학 교실에서 시행한 법의부검 206예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과 연령별로 분류하였고, 연령은 10세 단위로 세분하였으며, 부검 당시 신원 불상이었던 경우는 미상(NI, not identified)으로 하였다. 사망의 종류는 부검 소견과 주어진 사건 개요 및 사건 자료를 통하여 외인사(unnatural death)와 내인사(natural death)로 구별하였다. 외인사는 다시 자살(suicide), 타살(homicide), 사고사(accidental death), 불상(undetermined)으로 세분 하였다.<sup>1)</sup> 사망의 원인을 형태학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사자료, 의료문서, 이화학적 검사 결과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추정적 진단을 하였으며, 추정적 진단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명(unknown)으로 하였다.

외인사의 사인은 통상의 방법을 준용하여 손상사, 질식사, 익사, 중독사, 온도이상에 의한 사망, 기타(감전사, 기아 및 유기에 의한 사망, 의료행위에 의한 사망)로 분류하였고, 손상사는 둔기에 의한 손상, 예기에 의한 손상, 총기에 의한 손상, 교통기관에 의한 손상, 추락 및 전도에 의한 손상 등으로 세분하였다. 질식사사는 의사, 교사, 액사, 비구폐색, 외상성 질식사, 체위성 질식사, 산소 결핍성 질식사 등으로 세분하였고, 온도이상에 의한 사망은 화재사와 저체온사 등으로 세분 하였다.<sup>1)</sup> 둔기손상에는 흉기를 비롯하여 구타와 압착에 의한 손상을 포함시켰으며, 원발성 쇼크와 외상성 쇼크도 둔기손상에 포함시켰다.

내인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sup>2)</sup>를 준용하여 심혈관계(심장과 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신경계, 임신/출산/산욕기의 모성 사망, 사산아를 포함한 주산기의 신생아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10세 미만의 소아는 출생전기(prenatal period), 신생아기(neonatal period, 생후 4주간), 영아기(infancy, 생후 1개월~1세 미만), 유아기

(preschool, 1~5세), 학령기(prepuberal period, 6~9세)로 연령 군을 세분한 후 사망의 종류별로 구분하였다.<sup>3)</sup>

## 결 과

### 1. 연령 및 성별, 사망의 종류 분류(Table 1)

#### 가. 연령 및 성별 분류

총 206예 중 남성이 139예(67.5%), 여성이 67예(32.5%)로 남성이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8명(3.9%), 10대 5명(2.4%), 20대 18명(8.7%), 30대 30명(14.6%), 40대 58명(28.2%), 50대 54명(26.2%), 60대 18명(8.7%), 70대 11명(5.3%), 80대 이상은 2명(1.0%), 미상 2명(1.0%)이었으며 40대와 50대에서 112명(54.4%)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 나. 사망의 종류

##### 1) 내인사

내인사는 79예로 전체 206건의 부검 예 중에서 38.3%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 남성이 60명(75.9%)이었고 여성이 19명(24.1%)으로 남성에서 압도적이었다. 내인사를 연령대 별로 분류해 보면 40대에서 21명(26.6%), 50대에서 22명(27.8%)으로 40대와 50대에서 가장 많았다.

##### 2) 외인사

외인사는 127예로 전체 206건의 부검 예 중에서 61.7%였다. 외인사 중에서는 남성이 79예(62.2%), 여성이 48예(37.8%)로 역시 남성에서 많았다. 연령별 분포에서는 불상 2명을 제외하고, 내인사의 연령분포에서처럼 40대 37명(29.1%), 50대 32명(25.2%)으로 이 두 연령대가 가장 많았다. 외인사 중에서는 자살이 33예(26.0%), 타살이 46예(36.2%), 사고사가 37예(29.1%), 불상(undetermined)은 11예(8.7%)이었다. 외인사 중 자살과 사고사의 빈도는 비슷하였고, 타살이 36.2%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자살의 경우 남성이 18명(14.2%), 여성이 15명(11.8%)이었고, 타살의 경우 남성이 28명(22.0%), 여성이 18명(14.2%)이었다. 사고사는 남성이 25명(19.7%), 여성이 12명(9.4%)이었다. 자살의 남녀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타살과 사고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 3) 불명

본 기관에서 시행된 206건의 부검 예 중에서 불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2. 외인사의 원인 별 분류(Table 2)

로 인한 사망이 15예(11.8%)이었고 익사와 중독사가 각각 14예(11.0%)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127예의 외인사 중에서 손상사가 59예(46.5%)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다. 그밖에 질식사 21예(16.5%), 온도이상으

**Table 1.** Age, Sex, and Manner of Death of Total Numbers

Manner of death	Age Sex	<10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		NI <sup>1)</sup>		Subtotal		Total (%)	
		M	F	M	F	M	F	M	F	M	F	M	F	M	F	M	F	M	F	M	F	M	F		
Unnatural		5	1	2	1	5	7	12	5	19	18	25	7	8	3	1	6	0	0	2	0	79	48	127	61.7
Suicide		0	0	0	1	1	5	1	1	7	6	8	1	1	0	0	1	0	0	0	0	18	15	33	26
Homicide		3	0	2	0	0	2	5	1	8	8	5	3	5	0	0	4	0	0	0	0	28	18	46	36.2
Accident		2	1	0	0	3	0	5	3	4	2	9	2	2	3	0	1	0	0	0	0	25	12	37	29.1
Undetermined		0	0	0	0	1	0	1	0	0	2	3	1	0	0	1	0	0	0	2	0	8	3	11	8.7
Natural		2	0	1	1	5	1	9	4	17	4	20	2	3	4	2	2	1	1	0	0	60	19	79	38.3
Unknown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Subtotal		7	1	3	2	10	8	21	9	36	22	45	9	11	7	3	8	1	1	2	0	139	67	206	100
Total (%)		3.9		2.4		8.7		14.6		28.2		26.2		8.7		5.3		1		1		100			

NI<sup>1)</sup>: Not identified

**Table 2.** Cause of Death and Sex in Unnatural Death

Sex	Suicide		Homicide		Accident		Undetermined		Subtotal		Total	(%)		
	M	F	M	F	M	F	M	F	M	F				
Trauma	4	6	24	11	10	3	1	0	39	20	59	46.5		
Asphyxia	7	4	1	3	5	1	0	0	13	8	21	16.5		
Drowning	2	3	0	1	2	2	4	0	8	6	14	11		
Poisoning	2	2	1	2	4	3	0	0	7	7	14	11		
Thermal injury	3	0	1	1	2	3	2	3	8	7	15	11.8		
Electrocution	0	0	0	0	2	0	0	0	2	0	2	1.6		
Starvation/Neglect	0	0	0	0	0	0	1	0	1	0	1	0.8		
Medical procedure	0	0	1	0	0	0	0	0	1	0	1	0.8		
Unknown	0	0	0	0	0	0	0	0	0	0	0	0		
Subtotal (%)			18	15	28	18	25	12	8	3	79	48	127	100
			14.2	11.8	22	14.2	19.7	9.4	6.3	2.4	62.2	37.8	100	
Total (%)			33		46		37		11		127			
			26		36.2		29.1		8.7		100			

**Table 3.** Classification of Traumatic Death

Sex	Suicide		Homicide		Accident		Undetermined		Subtotal		Total	(%)		
	M	F	M	F	M	F	M	F	M	F				
Blunt force injury	1	1	6	3	2	0	0	0	9	4	13	22		
Sharp force injury	2	1	10	4	0	0	0	0	12	5	17	28.8		
Gunshot injury	0	0	1	0	0	0	0	0	1	0	1	1.7		
Traffic injury	0	0	6	4	0	1	1	0	7	5	12	20.3		
Fall down	1	4	1	0	8	2	0	0	10	6	16	27.1		
Explosion	0	0	0	0	0	0	0	0	0	0	0	0		
Subtotal (%)			4	6	24	11	10	3	1	0	39	20	59	100
			6.8	10.2	40.7	18.6	16.9	5.1	1.7	0	66.1	33.9	100	
Total (%)			10		35		13		1		59			
			17		59.3		22		1.7		100			

가. 손상사(Table 3)

손상사 59예 중 예기에 의한 손상이 17예(28.8%)로 가장 많았고, 근소한 차이로 전도 및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16예(27.1%)로 많았다. 둔기에 의한 손상이 13예(22.0%), 교통기관 손상이 12예(20.3%), 총기에 의한 손상이 1예 있었다.

둔기손상을 부위에 따라 분류할 때 두부손상, 흉부손상, 복부손상이 각각 3예(25.0%)씩이었고, 그 외에 다발성 손상이 1예, 단독으로 사망에 기여할 정도의 손상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전신에 분포하는 다수의 손상에 의한 외상성 쇼크가 2예, 원발성 쇼크가 1예 있었다(Table 4). 둔기손상 중 타살이 9예(69.2%)를 차지하였고, 자살도 2예 있었다. 예기 손상에서는 거의 대부분(82.4%)이 타살이었다(Table 5).

나. 질식사(Table 6)

질식사 21예 중에서는 의사가 9예(42.9%)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는 모두 자살로서 남성이 6명(66.7%), 여성이 3명(33.3%)이었다. 액사 3예(14.3%)는 모두 타살이었으며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다. 기도 폐색으로 인한 사망은 5예(23.8%)이었으며 사고사 4예와 자살 1예였다. 비구폐색으로 인한 사망은 2예(9.5%)이었고 자살 1예, 타살 1예였다. 비구폐색에 의한 자살은 수면제와 알코올을 마신 후 본인의 입을 넓은 테이프로 막아서 사망한 경우였다. 기타로 지하 갱도에서 작업도중 발생한 산소결핍에 의한 사망과 경부 손상에 의한 사망이 각 1예씩 있었다.

Table 4. Fatal Sites of Blunt Force Injury and Manner of Death

	Head	Neck	Chest	Abdomen	Leg	Multiple	TSH <sup>1)</sup>	PSH <sup>2)</sup>	Total	(%)
Suicide	1	0	0	0	0	0	1	0	2	15.4
Homicide	2	0	3	3	0	1	0	0	9	69.2
Accident	0	0	0	0	0	0	1	1	2	15.4
Undetermined	0	0	0	0	0	0	0	0	0	0
Total	3	0	3	3	0	1	2	1	13	
(%)	23.1	0	23.1	23.1	0	7.7	15.4	7.7	100	100

TSH<sup>1)</sup>: Traumatic shock, PSH<sup>2)</sup>: Primary shock

Table 5. Fatal Sites of Sharp Force Injury and Manner of Death

	Head	Neck	Chest	Abdomen	Back	Arm	Leg	Multiple	Total	(%)
Suicide	0	0	0	2	0	0	0	1	3	17.6
Homicide	1	2	5	3	0	0	0	3	14	82.4
Accident	0	0	0	0	0	0	0	0	0	0
Undetermined	0	0	0	0	0	0	0	0	0	0
Total	1	2	5	5	0	0	0	4	17	
(%)	5.9	11.8	29.4	29.4	0	0	0	23.5	100	100

Table 6. Cause of Death in Asphyxia

Sex	Suicide		Homicide		Accident		Undetermined		Subtotal		Total	(%)
	M	F	M	F	M	F	M	F	M	F		
Hanging	6	3	0	0	0	0	0	0	6	3	9	42.9
Strangulation <sup>1)</sup>	0	0	0	3	0	0	0	0	0	3	3	14.3
Choking	0	1	0	0	3	1	0	0	3	2	5	23.8
Smothering	1	0	1	0	0	0	0	0	2	0	2	9.5
Traumatic asphyxia	0	0	0	0	1	0	0	0	1	0	1	4.8
Postural asphyxia	0	0	0	0	0	0	0	0	0	0	0	0
Asphyxia d/t OD <sup>2)</sup>	0	0	0	0	1	0	0	0	1	0	1	4.8
Subtotal	7	4	1	3	5	1	0	0	13	8	21	100
(%)	33.3	19	4.8	14.3	23.8	4.8	0	0	61.9	38.1	100	
Total	11		4		6		0		21			
(%)	52.3		19.1		28.6		0		100			

Strangulation<sup>1)</sup>: Manual strangulation

OD<sup>2)</sup>: Oxygen deficiency

다. 중독사(Table 7)

중독사는 총 14예이었으며, 알코올에 의한 사망이 6예(42.9%)로 가장 많았고, 농약에 의한 사망이 5예(35.7%)로 많았다. 환각 작용이 있는 부탄가스로 인한 사망이 1예 있었으며, 치료 약물에 의한 사망이 2예 있었다.

라. 온도에 의한 사망(Table 8)

온도에 의한 사망은 대부분이 화재사(11예, 73.3%)였고, 화재사는 자살 3예, 타살 2예, 사고사 1예, 불상 5예였다. 저체온사가 4예 있었으며 그 중 여성이 3예이었다.

마. 익사(Table 9)

익사는 14예로 자살 5예, 타살 1예, 사고사 4예, 불상 4예이었다.

바. 기타

의료행위로 인한 사망이 1예 있었으며, 의료행위로 인한 사망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 질환이었고, 이는 수술 전 평가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되어 사망한 경우였다. 기타 감전사 2예와 기아사 1예가 있었다.

3. 내인사의 원인별 분류(Table 10)

내인사 79예 중 심장질환이 46예(58.2%)로 가장 많았고, 혈관질환 10예를 포함할 경우 심혈관계 질환이 전체 79건 중 56예(70.9%)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호흡계 8예(10.1%)와 소화계 6예(7.6%)가 많았으며, 간질에 의한 사망도 2예 있었다.

가. 심혈관계

심장질환 46예 중에서 죽상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허혈성 심

Table 7. Cause of Death in Poisoning

Sex	Suicide		Homicide		Accident		Undetermined		Subtotal		Total	(%)
	M	F	M	F	M	F	M	F	M	F		
Ethanol	0	0	0	0	3	3	0	0	3	3	6	42.9
Agrochemicals	2	1	1	1	0	0	0	0	3	2	5	35.7
Therapeutic drugs	0	1	0	1	0	0	0	0	0	2	2	14.3
Organic solvents	0	0	0	0	1	0	0	0	1	0	1	7.1
Subtotal	2	2	1	2	4	3	0	0	7	7	14	127.3
(%)	14.3	14.3	7.1	14.3	28.6	21.4	0	0	50	50	100	
Total	4		3		7		0		14			
(%)	28.6		21.4		50		0		100			

Table 8. Cause of Death in Thermal Injury

Sex	Suicide		Homicide		Accident		Undetermined		Subtotal		Total	(%)
	M	F	M	F	M	F	M	F	M	F		
Fire	3	0	1	1	1	0	2	3	7	4	11	73.3
Burn	0	0	0	0	0	0	0	0	0	0	0	0
Heat/Sun stroke	0	0	0	0	0	0	0	0	0	0	0	0
Hypothermia	0	0	0	0	1	3	0	0	1	3	4	26.7
Subtotal	3	0	1	1	2	3	2	3	8	7	15	100
(%)	20	0	6.7	6.7	13.3	20	13.3	20	53.3	46.7	100	
Total	3		2		5		5		15			
(%)	20		13.4		33.3		33.3		100			

Table 9. Cause of Death in Drowning

	Suicide	Homicide	Accident	Undetermined	Subtotal	(%)
Male	2	0	2	4	8	57.1
Female	3	1	2	0	6	42.9
Subtotal	5	1	4	4	14	100
(%)	35.7	7.1	28.6	28.6	100	

Table 10. Cause of Death and Sex in Natural Death

	Cause of death	Male	Female	Subtotal	(%)	Total	(%)
Heart	Ischemic heart disease	24	3	27	58.7	46	58.2
	Myocardial disease	11	2	13	28.3		
	Valvular disease	0	0	0	0		
	Hypertensive disease	0	0	0	0		
	Others	4	2	6	13		
Vascular system	Cerebral hemorrhage	2	3	5	50	10	12.7
	Cerebral infarction	0	1	1	10		
	Pulmonary embolism	1	1	2	20		
	Aorta, dissecting aneurysm	0	2	2	20		
Respiratory system	Disease of larynx/pharynx	0	0	0	0	8	10.1
	Disease of trachea	0	0	0	0		
	Pulmonary disease	8	0	8	100		
Digestive system	Disease of stomach/intestine	0	1	1	16.7	6	7.6
	Hepatic disease	4	1	5	83.3		
	Pancreatic disease	0	0	0	0		
Nervous system	Epilepsy	1	1	2	100	2	2.5
	Others	0	0	0	0		
Pregnancy /Puerperium /Delivery	Disease of placenta	0	0	0	0	2	2.5
	Uterine disease	0	0	0	0		
	Embolism	0	2	2	100		
	Others	0	0	0	0		
Perinatal conditions	Hypoxia	0	0	0	0	0	0
	Others	0	0	0	0		
Ill-defined mortality	Adult	3	0	3	75	4	5.1
	Infant	1	0	1	25		
	Others	0	0	0	0		
Miscellaneous	Certain infections	1	0			1	1.3
	Other neoplasm	0	0			0	0
	Blood disease	0	0			0	0
	Nutritional disorder	0	0			0	0
	Mental disorder	0	0			0	0
	Congenital disease	0	0			0	0
Total (%)		60	19			79	100

장질환이 27예(58.7%)였으며, 그 다음으로 심근질환이 13예(28.3%)였다. 심근질환에는 확장성 심근병증 6예, 비후성 심근병증 4예, 심근염 3예가 포함되었다.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은 남성이 39명(84.8%), 여성이 7명(15.2%)으로 남성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타 6예에는 교정형 대혈관 전위 및 삼첨판 폐쇄 부전 1예, 부정맥 야기성 우심실 이형성증 1예 등이 있었다. 혈관계 질환에서는 뇌출혈과 뇌경색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이 6예(60.0%)이었고, 그 중에서 뇌경색은 1예(10.0%), 뇌출혈은 5예(50.0%)이었다. 뇌출혈의 양상은 지주막하 출혈 4예, 뇌실질 출혈이 1예이었다. 그밖에 혈관계 질환으로는 폐동맥 색전증과 대동맥 박리가 각각 2예씩이었다. 혈관계 질환은 심장질환과는 달리 여성이 7명으로 남성보다 많았다.

나. 호흡계 및 소화계

호흡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 8예 중 폐렴이 5예(62.5%)로 가

장 많았고, 결핵감염과 기관지 확장증에 의한 대량 객혈로 인한 사망이 1예 있었다. 소화기계에서는 간질환 및 그에 따른 식도정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이 3예(50.0%)이었고, 간암의 폐전이에 의한 사망이 1예 있었다.

다. 신경계

신경계 중에서는 간질로 사망한 경우가 2예 있었으며, 간질로 인한 2건의 사망은 간질 발작 중 위 내용물의 기도 내 흡인으로 인한 사망 1예, 간질 중 호흡관으로 인한 사망 1예이었다.

라. 임신, 분만, 산욕기의 모성 사망

임신, 분만, 산욕기의 모성 사망의 경우는 2예 있었으며, 이들은 양수 색전증에 의한 사망이었다.

마.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은 외인이 작용하지 않았거나, 작용하였더라도 사인과 연결시키기에 경미한 경우, 또는 외인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이었다. 청장년급사증후군이 3예, 영아급사증후군이 1예로 내인사의 5.0%에 해당되었다.

바. 기타

기타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이 1예 있었다.

4. 소아사망의 종류, 연령 및 성별 분류(Table 11)

10세 미만의 소아 사망은 총 8예 이었으며, 내인사가 2예(25.0%)이고 외인사가 6예(75.0%)이었다. 내인사는 패혈성 쇼크 1예, 영아급사 증후군이 1예이었다. 외인사 중에서는 타살이 3예(50.0%)이었으며, 나머지 3예는 개의 교착으로 인한 속발성 쇼크사 1예, 이물로 인한 기도폐색 1예, 양수 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색 1예이었다.

고 찰

본 기관에서 시행되었던 부검 중 사인은 물론 내인사인지 외인사인지 조차 구별할 수 없었던 불명 건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고도로 부패가 진행된 시신에 대한 부검이 극히 적었던 점 등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외인사로 분류되었으나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던 불상 건은 11예(8.7%)로 10-20%였던 과거의 보고<sup>4-7)</sup>와 비슷하였다. 또한 연령별 분류를 보면, 과거 법의부검에 대한 국내의 통계보고에서 40대가 가장 많은 점에서는 동일하나, 두 번째로 30대가 많았던 과거의 보고와 달리 본 기관에서는 50대가 두 번째로 많았다.<sup>4-7)</sup>

외인사의 원인별 분석에서 127예의 외인사 중 손상사, 질식사, 온도이상으로 인한 사망, 익사와 중독사 순으로 많았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과거의 보고와 대동소이하였다.<sup>4-7)</sup>

손상사에서 본 기관에서는 예기손상에 의한 사망이 가장 많았으나 과거의 보고<sup>4-6)</sup>에서는 둔기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손상사에서 가장 많았다. 둔기손상에 의한 사망은 사망의 종류로서 타살이 일반적이나, 총 13예의 둔기손상에 의한 사망 중 자살이 2예 있었다. 자살이었던 두 예는 음주 후 머리를 바닥에 짚는 습관이 있던 변사자에서 뇌간부 출혈에 의한 사망과 정신질환이 있던 변사자가 사망 전에 본인이 임신을 하였다며 스스로 자해를 하던 중 외상성 쇼크에 의한 사망이었다. 질식사 21예 중에서 자살이 11예(52.3%)였으며, 이는 45.0-57.9%였던 기존의 보고<sup>4-7)</sup>와 큰 차이는 없었다.

중독사에 의한 사망 중 자살이 33-167예(58.4%-67.4%), 타살이 0-2예(0.0-1.9%)로 자살이 타살보다 월등히 많은 부분을 차지 했었던 이전의 보고<sup>4-7)</sup>와는 달리 본 기관에서 시행했던 부검 예에서는 자살과 타살의 비율이 각각 몇 4예(28.6%)와 3예(21.4%)로 비슷하였다. 만성 주정중독과 최근의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케톤산증 등에 의한 사망은 중독사에 포함하였으며, 3예가 있었다. 전체 외인사의 불상 11예 중 화재사가 5예(45.5%)를 차지하였다. 이는 고도로 부패된 부검의 예가 극히 적었던 본 기관에서 불상으로 감정되었던 부검 예 중 많은 부분이 화재사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내인사 중에서는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39.0-56.0%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도 허혈성 심장질환이 56.1-88.9%로 가장 많았던 기존의 보고<sup>4-7)</sup>와 같이 본 기관에서도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58.2%로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58.7%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심근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0-20% 내외를 보였던 지난 보고<sup>4-7)</sup>들과 달리 본 보고에서는 심근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13예(28.3%)로 약간 높은 빈도를 보였다. 심근질환 13예는 확장성 심근증 6예, 비후성 심근증 4예, 심근염 3예이었으나, 기존의 보고에서 심근질환으로 인한 사망에 어떤 질환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아 비교할 수는 없었다. 과거의 보고<sup>4-7)</sup>에서는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남성 77-464

Table 11. Manner of Death in Children Under 10 Years of Age

	Sex	Prenatal <sup>1)</sup>		Neonate <sup>2)</sup>		Infancy <sup>3)</sup>		Preschool <sup>4)</sup>		Prepuberal <sup>5)</sup>		Subtotal		Total	(%)
		M	F	M	F	M	F	M	F	M	F	M	F		
Unnatural		0	1	1	0	2	0	0	0	2	0	5	1	6	75
Suicide		0	0	0	0	0	0	0	0	0	0	0	0	0	0
Homicide		0	0	1	0	1	0	0	0	1	0	3	0	3	50
Accident		0	1	0	0	1	0	0	0	1	0	2	1	3	50
Undetermined		0	0	0	0	0	0	0	0	0	0	0	0	0	0
Natural		0	0	0	0	1	0	1	0	0	0	2	0	2	25
Unknown		0	0	0	0	0	0	0	0	0	0	0	0	0	0
Subtotal		0	1	1	0	3	0	1	0	2	0	7	1	8	
(%)		0	12.5	12.5	0	37.5	0	12.5	0	25	0	87.5	12.5		100
Total		1		1		3		1		2		8		8	
(%)		12.5		12.5		37.5		12.5		25		100			

Prenatal<sup>1)</sup>: before birth ; Neonate<sup>2)</sup>: birth-4 week ; Infancy<sup>3)</sup>: 1 month-1 year ; Preschool<sup>4)</sup>: 2 year-5 year ; Prepuberal<sup>5)</sup>: 6 year-10 year

명(77.4-88.9%), 여성 21-58명(11.1-22.6%), 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남성 16-127명(61.1-69.8%), 여성 10-55명(30.2-38.9%)으로 두 질환 군 모두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았다. 본 보고에서는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남성에서 더 많았으나, 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여성이 7명으로 남성 3명보다 더 많았다. 이는 혈관계 질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뇌혈관 질환의 경우 고령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연령별 인구 분포<sup>9)</sup> (60세 이상 전국 남성의 백분율 5.6%, 60세 이상 전국 여성의 백분율 7.7%, 60세 이상 광주 남성의 백분율 4.4%, 60세 이상 광주 여성의 백분율 6.0%, 60세 이상 전남 남성의 백분율 9.3%, 60세 이상 전남 여성의 백분율 14.1%)를 고려할 때, 본 지역의 인구 분포 중 고령의 여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광주, 전남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 사법부검 206건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검시제도 상 부검 여부의 결정 및 사건 개요 작성, 관계인 진술 및 현장 조사 등이 온전히 사법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고, 실제 검시(檢屍)를 담당하는 법의학자들은 사건의 종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등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할 때, 부검 예의 통계적 고찰만으로는 본 연구에서 대상이 된 지역의 사망 사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분석이 완전하지 못함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이 꾸준히 축적되면 추후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요 약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전남대학교 법의학교실에서 시행한 206예의 법의부검을 성, 연령, 사망의 종류 및 사인 별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총 206예 중에서 남성이 139명(67.5%), 여성이 67명(32.5%)이었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58명(28.2%), 50대가 54명(26.2%)으로 40대와 50대가 전체의 54.4%를 차지하였다.
2. 사망의 종류로는 외인사가 127예(61.7%), 내인사가 79예(38.3%)이었다. 외인사 127예 중에는 자살이 33예(26.0%), 타살이 46예(36.2%), 사고사가 37예(29.1%), 불상이 11예(8.7%)이었다.
3. 외인사의 원인에 따른 분석에서는 손상사 59건 중에서 둔

기손상, 예기손상, 교통사고에 의한 손상, 전도 및 추락에 의한 손상이 각각 22.0%, 28.8%, 20.3%, 27.1%이었다. 질식사는 총 21예(16.5%)이었고, 온도이상에 의한 사망이 15예(11.8%), 익사와 중독사가 각각 14예(11.0%), 기타 4예(3.2%) 이었다.

4. 내인사 79건 중에서는 심장질환이 46예(58.2%), 혈관질환이 10예(12.7%)로 심혈관계 질환이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호흡기 질환이 8예(10.1%), 소화계 6예(7.6%), 기타 10예(11.4%)이었다.

5. 10세 미만의 아동 사망은 총 8예이었으며, 외인사가 6예, 내인사가 2예이었다. 외인사 6예 중에서는 3예가 타살이었고, 사고사가 3예이었다.

결론적으로 광주 전남지역에서 법의부검의 대상은 40대와 50대의 남성에서 많았고, 외인사가 내인사보다 많았다. 외인사는 자살, 타살, 사고사가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내인사는 심혈관계 질환이 56예(70.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참 고 문 헌

1. Yun JJ. Forensic Medicine. 1st ed. Seoul: Korea Medicine; 2006. p. 8-9.
2. Korea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 (KCD). Korea Medical Record Association.
3. Hong CE. Pediatrics. 7th ed. Seoul: Dehan; 2001. p. 15-6.
4. Lee WT, Cho JH, Ki CD, Kim JK, Kang SM. The statistical analysis on legal autopsy in 2001 The headquarters of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Kor J Legal Med 2002;26:1-9.
5. Lee SY, Kim JH, Jeon SH, Seo JS. A statistical analysis on legal autopsy in Chung-cheong area of Korea in 2003 The central district of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Kor J Legal Med 2004;28:1-9.
6. Lee SY, Kang GH, Min BW, Jeon SH, Seo JS. A statistical analysis on legal autopsy in Chung-cheong area of Korea in 2004 The central district of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Kor J Legal Med 2005;29:1-9.
7. Lee WT, Cho WY, Ki CD, Kim FK, Kang SM. The statistical analysis on legal autopsy in 2004 (The headquarters of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Kor J Legal Med 2005;29:121-9.
8.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The aged by administrative district, age and sex (60 yrs and over). available at <http://www.kosis.kr/>



